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 권지품 제13

인내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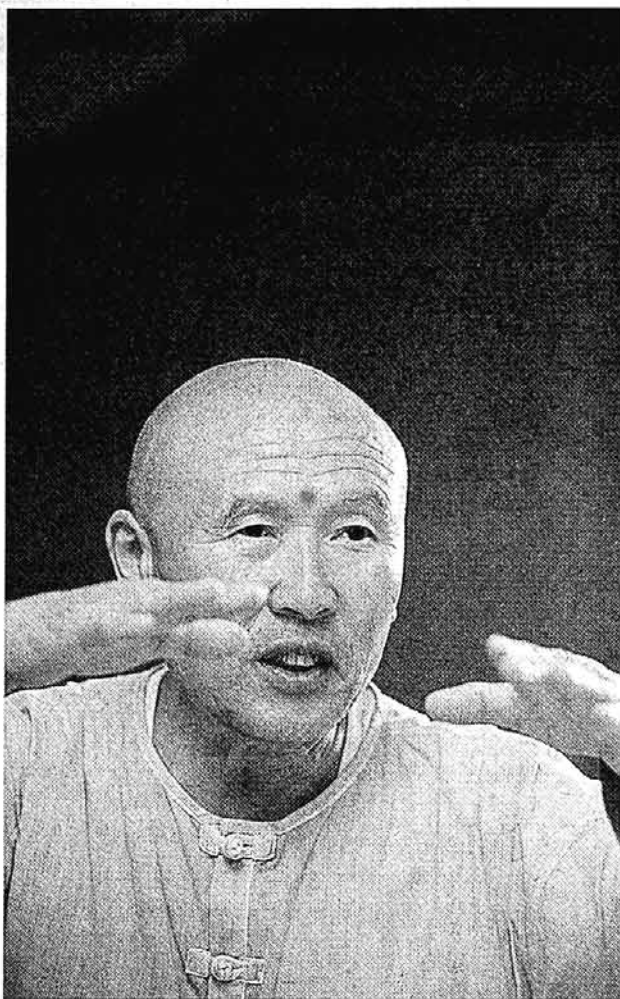
이 13장의 장명(章名)을 옛날에는 '지품(持品)'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가르침(經)을 간직(持)한다는 의미에서였다.

앞서 말했듯이 부처님께서서 제10장 법사품 이래 여래가 멸도한 후에 <법화경>을 펼치는 것에 대해 설해 왔다. 특히 '견보담품'에서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누가 이 <법화경>을 믿고 간직하며 읽어주고 외워줄 건가. 지금 부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서원을 말하라' 하시고, 여래가 멸도한 후에 <법화경>을 흥통할 사람을 세 번에 걸쳐 모집했다(이를 세 개의 고좌(告座)이라 함). 지금의 이 '권지품'은 이러한 부처님의 부름에 답하여 불제자들이 스스로 경전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넓힐 것을 맹세하는 장이다.

우선 최초에 약왕보살과 대요설보살이 2만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래가 멸도한 후의 열악한 세상에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읽어주고

응하여 여래가 멸도한 후의 세상에서 경전을 간직할 것과 넓힐 것을 맹세한 사람들이다. 경전을 간직한다는 것이라,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경전을 간직하는 사람 자신의 일이다. 하지만 경전을 널리 전파하는 것은 이것을 남에게 이해시켜 받아들이게 하여 믿도록 하는, 즉 남에 대한 역할이므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뽑아 없애기 어려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뚜렷한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데 더구나 <법화경>의 교설은 당시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었다. 나고 죽고 하면서 삼지(三祇) 백겁(百劫)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걸쳐 보살 수행을 거쳐야만 겨우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한 구절(一句),



남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삼베 자루에 물을 가득 채우면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남산 자락의 힘줄사에서 만나 빈 우롱스님이 법문 가운데 던진 물음이다. 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화현인 보덕각시의 입을 통해 그 답을 들려주신다. "삼베자루에 물을 담을 수 있다고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 실전이 없고 실천이 없으니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5월의 햇살도 바람도 모두 송송 세어 버릴 삼베자루에 물을 채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사의해 보이는 '삼베자루 물채우기'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가 고정관념의 그림자에 가려 '삼베자루'에는 물을 채울 수 없다' 하는 식의 헛된 환(幻)에 속고 있는 것일뿐.

일베의 예를 갖추고 법문을 청하자 "세상사 모두가 엄따라 굴러가는 것이지, 법문하고 법문들은 것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신다. 찻물이 끓는 소리가 높아지다 차를 찾아들자 차를 우려 따라주신다. 송화가루로 만든 다식을 조그만 그릇에 알맞게 놓으시는 것을 바라보며 차를 한모금 마시고 있으니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화현인 보덕

까지 설화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보덕각시 설화는 내가 법문에서 자주 인용하는 것입니다. 신라말기에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회정스님과 얽힌 얘기에는 불교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들려주신 얘기는 대략 이렇다.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한 100일기도를 한 회정스님은 문수보살의 화현인 노인이 가르쳐준 길을 따

눈앞 이익만 쫓아 환경파괴 댐 그 피해 결국 자식들이 입게돼

라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곳에 이른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며 아버지는 보현보살의 시현이지만 회정스님은 알아보지 못했다. 팔과 결혼하면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게 해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마지못해 결혼을 한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겠다는 원 하나로 세월을 보낸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는 지게 지고, 밭매고, 짚신 삼는 일 등 하루종일 일만 시키며 친견 날은 아직 멀었다는 답을 즐겼었다. 결국 스님

“내 가족을 부처

은 그곳을 떠나 길을 가르쳐 주었던 노인에게 가니 그 노인은 "그래, 관세음보살님은 친견하셨소?" 하고 묻는다. 회정스님은 "못했다"고 대답할 수밖에. 그러자 그 노인은 "한 이부자리에서 지내고도 뿔뿔한 말이요?" 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관세음보살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안 스님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고개를 넘어 부랴부랴 그 집을 찾아보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이러 스님은 조금 후대의 설화를 함께 들려주었다. 이 얘기 속에 삼베자루가 등장한다.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놓쳐버린 회정스님이 백운날 구룡을 꼭꼭에 가면 관세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기도 후, 꼭꼭을 찾아 처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부르는데 파란 새가 되어 포르르 날아가 버렸다. 새가 간 곳을 쫓아 흰병통을 타고 올라가니 그곳에는 자연 석굴이 하나 있었다. 회정스님은 그곳에서 배저린 정진을 이어갔다. 어느 날, 20대 처녀와 50대 촌부가 찾아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처녀는 아버지에게 쌀 세 가마가 들어갈 정도의 큰 삼베자루를 남떠러지에 매달아 주며 이 자루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자신은 먹고 입은 것 등 일체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녀를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한 회정스님이 이 사실을 고백하자 "그것이 원이라면 그렇게 하셔라. '그것이 원이라면 그렇게 하셔라' 하며 스님을 동굴 안으로 데리고 가 벽에 걸려있던 탕화를 바닥에 툇 깔아놓고 "이제 나를 마음대로 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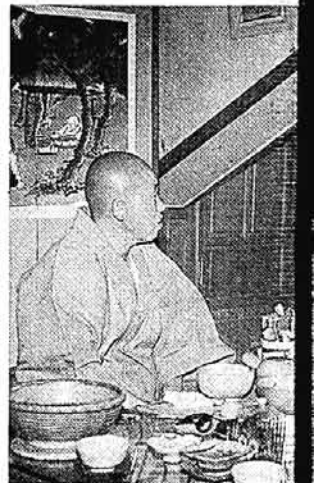
가까이서 우롱스님

가족끼리 화

먼저 우리집

옆집 또 옆집

바로 불국정



◇많은 불자들이 생활과 불교를 분리하여 우롱스님. 믿음과 실천의 통일만이 이 땅

한다. "삼베자루에 물이 담길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 실천이 없고 실천이 없으니 결과가 없는 것"이라며 아버지를 호통친다. 이후 아버지는 일심으로 물을 담아 삼베자루를 가득 채우고는 "초롱불이 불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밥이 벌써 되었을 걸"하며 당시 명심 출을 춘다.

"죽은 부처는 겁을 내고 살아 있는 부처님 무서운 줄은 왜 모르느냐는 보덕각시의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절에 가서 법당에 있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믿는 우리, 인욕의 갑옷입고 법화경 설하기 위해 어려운 일 참고...

의위주거나 배겨 쓰거나 사람들에게 설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자 다음에는 5백의 아라한들이 맹세를 하고, 또 8천의 배움을 마친 사람과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넓힐 것을 맹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사바세계 이외의 다른 국토에서 넓힐 것을 맹세한다. 그 이유는 이 사바 국토의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많아 교만하며 덕을 베풀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극히 적고 성대기를 잘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하푸라자파티와 야소다라, 이 두 사람의 비구니를 비롯한 6천의 비구니들이 맹세를 한다. 이 13장에 이르기까지는 이해력이 높은 상근기인 사리푸트라를 비롯해 이해력이 낮은 하근기인 푸루나와 카운디나들이 차례로 부처님으로부터 미래에 성불한다는 예언(授記)을 받았지만 이 비구니들에게는 아직껏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 겨우 부처님께서 성불의 예언을 주시므로 더 없는 기쁨을 느끼고 타방 국토에서 <법화경>을 흥통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맨 끝에 불퇴전의 경지에 있는 80만 억 나유타의 대보살들도 맹세를 한다.

이상 다섯 종류의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한 시승(一師)이라도 들으면 누구라도 성불한다고 한다. 혹은 '방편품'의 계승에서는 어린애가 놀이 삼아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거나, 누구나 한번이라도 '나무'를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성불한다고 설한다면 종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사람 편에서 보면 이것은 이미 불교가 아닌 의도의 가르침으로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당시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은 스스로의 가르침을 비밀스러운 가르침(秘說)이라 부르고, 세상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세상에 넓히려 할 때, 세상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비방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앞의 '법사품'에서 "이 가르침은 여래가 세상에 있는 현재(現)에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멸도한 후에야 말해 무엇하랴"라고 설한은 바로 그런 뜻이다.

부처님 믿는 우리 인욕의 갑옷 입고, 법화경 설하기 위해 어려운 일 다 참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만 무상도를 구해, 앞으로 오는 세상 부처님 분부대로 지키고 간직하오리라.

■무설정사 조실

당대 불교사상과 실천을 조명하는 한국불교의 정본지!

참여불교 5·6월호 발간!



머리말 석굴암의 침묵

특집1.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뒤집어보기

하화중생 없는 한국 선 / 박노자
불교경전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비론 이해 / 조성택

특집2. 복을 빌면 복은 오는가

기복신앙의 지양방안 / 권경술
기복불교, 제대로 하자 / 성태음
한국 가톨릭 신자의 기복신앙 / 박문수
기복신앙의 현재와 미래 - 개신교 / 박찬홍
기복에 관한 작은 조사 / 편집위원회

특집3. 쟁점, 석굴암모형관 건립문제

석굴암역사유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 / 이상해
석굴암은 독과점 권력을 거부한다 / 성낙주

기획연재1. 절집건축과 생태주의 ③

- 생태주의와 절집건축의 기본적 이해 / 이윤하

생활속의 명상 - '종성이 아프므로 내가 아프다' / 한주영

만남 - '건강한 몸의 정을 열자' / 성원사 정념스님

특별기고1. 미래교회 본령 사목의 모델 / 이은석

국제종교동향 - 혼용되고 있는 미국 가톨릭 교회 / 국제협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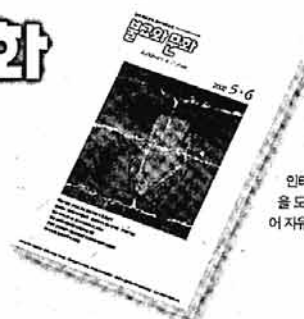
가운여울이 본 한국불교 - 지하철에서의 단상 / 가운여울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 buddha21 @ budgate.net 110-340 서울시 용문구 역삼동 30-6 신대우빌딩 205호 ☎ 745-7799

적당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성당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집 신자도 있습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3,000원 / 구독문의 02-745-7799

불교와 문화

2002년 5·6월호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활발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생활양식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려본과 함께 호흡합니다.

본초회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 전통 그림자극 '만석중놀이'

생활세계와 불교

불교에서는 안과 대화(對話)를 어떻게 보는가

불교정치/무엇이 불교적인가

1/2월호, 3/4월호에 이어지는 기복신앙과 불교 정체성에 대한 주장
"불정(佛定)은 불교의 정체성과 상반된다"

내가 만난 불교문화 - 호불정영호

운주사 천불전탑(千佛千塔)의 수수께끼

영화속에서 만나는 불교

'명왕 수가 없는' 당신계 사숙 8Km로 전하는 사경사 - 스트레이트 스트리

특집/불사번역의 의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불사의 번역과 오역(誤譯)의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이미 출판된 서적을 대상으로 오역의 사례를 집중 조명

• 영이권 상사의 한국어 번역과 오역의 문제 - 오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일본어 불사의 한국어 번역, 어떻게 해야 하나

• 지난해 '한국 불사의 일본어 번역의 과제와 방향'을 읽고

• 온전한 번역을 위한 제언

칼럼/회보

• 사찰의 또 다른 맛, 벽화를 찾아서 -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

성덕주의 문화재소식 - 영주 부석사편

• '아수라의 눈물'

포커스 -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시행 상황별 특별프로그램 소개



적당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팩스: (02)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0
2
7
3
7
8
8
1